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진다 SMALL AND STEADY APPROACH LEADS TO BIG THINGS

By Rick Boxx

고대 그리스의 스토리텔러 이솝이 쓴 우화인 "토끼와 거북이"를 아는가? 이 이야기는 달리기가 빠른 토끼가 느리게 움직이는 거북을 놀리는 내용이다. 토끼의 거만한 태도에 거북이는 토끼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도전한다.

Are you familiar with "The Tortoise and the Hare," the fable by the ancient Greek storyteller Aesop? It is about a fast-running hare (a relative of the rabbit) that ridicules a slow-moving tortoise. Wearied by the hare's arrogant behavior, the tortoise decides to challenge it to a race.

경주가 시작되자 토끼는 순식간에 거북이를 제치고 멀리 앞서 달렸다. 승리를 확신한 토끼는 경주 도중 잠시 낮잠을 자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느리지만 꾸준히 걸음을 옮기던 거북이가 이미 결승선에 도달해 우승자가 되어있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하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걸으면 경주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이다.

The race starts and the hare quickly leaves the tortoise far behind. Confident of victory, the hare decides to take a nap midway through the race. However, when the hare awakens to resume the race, it finds the tortoise – taking slow but steady steps – has arrived at the finish line before him and is declared the winner. The moral of this story is simple: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나는 살면서 경험을 통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젊은 직장인이었을 때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 때로는 큰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로 보이는 방법들을 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치게 만든 어리석은 결정이 되고 말았다 "절대 실패하지 않고 빠른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내 나름대로 확신했던 투자 전략들도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다.

Experience in my own life has taught me how true that statement is. As a young, impatient professional, at times I strived to get rich quickly. Sometimes I took what I regarded as shortcuts to making a lot of money. However, this approach led to foolish decisions that set me back rather than forward. The 'can't miss, quick return' investment strategies I utilized failed miserably.

그러나 내가 전혀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아직 젊었을 때 시작한 일이었다. 어떤 증권 브로커가 매달 25 달러씩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라고 내게 권유를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수익률이 더딘 투자 전략이었다. 특히 대학 시절에는 매달 25 달러를 떼어 놓는 것이 꽤 힘들었다. 당시 그 돈을 다른 데 쓰려고 마음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쓸 곳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모아가는 이 계획을 끝까지해보겠다고 결심했다.

However, one activity far exceeded my expectations. It started when I was still a youth. A stockbroker persuaded me to invest \$25 per month into a mutual fund, a slow-yield investment strategy. This was painful for me at times, especially during college. There were many ways I could have used the \$25 I set aside monthly. But I determined to faithfully stay with the plan, saving that small amount each month.

수년 후, 이 작지만 꾸준한 투자 방식은 꽤 큰 보상으로 돌아왔다. 첫 집을 마련하려고 했을 때, 계약금으로 쓸 수천 달러가 이미 모아져 있었다. 그때 내가 여러 해 동안 매달 조금씩 투자한 이 돈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마 당신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Years later this small and steady investment approach paid off with a substantial reward. By the time I was ready to buy my first house, I had accumulated thousands of dollars for a down payment. You can imagine how grateful I was for those small, monthly investments I had made over the preceding years.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에도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잠언 13 장 11 절은 이렇게 말한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급하게 얻은 부는 쪼그라들지만, 조금씩 모으는 부는 쌓인다 *역자 번역). 이처럼 잠언에서도 "작지만 꾸준히"라는 이 원리를 볼 수 있다.

After I became a follower of Christ and began studying the Bible, I discovered this principle affirmed in the Scriptures. Proverbs 13:11 teaches, "Wealth gained hastily will dwindle, but whoever gathers little by little will increase it." There is that principle again – small and steady.

물론 '단시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부유한 친척에게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혹은 획기적이고 기발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연히 떠올려 대성공을 거둔 예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례들 뒤에는 '단기간 부자 되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Yes, we can find some examples of people who have succeeded in "getting rich quick." Maybe they have won the lottery, received a huge inheritance from a wealthy relative, or stumbled upon a novel idea for a product that became a huge success. But for every example like that there are literally thousands of people who failed as they tried countless get-rich-quick schemes.

분명 "작지만 꾸준하게"라는 이 방식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덕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난 이것을 갖고 싶어! 지금 당장 말이야!"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주문처럼 자주 듣는 밀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속으로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잠언은 우리가 인생과 재정을 대할 때, 인내심을 갖고 느리지만 꾸준한 방식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다.

Admittedly, the small and steady approach requires patience – a virtue many of us lack. 'I want it! And I want it how!' is a mantra we often hear. You might have said it to yourself. But the book of Proverbs offers other insights that affirm the patient, slow and steady approach to life – and our finances.

예를 들어, 잠언 21 장 5 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나는 젊었을 때 힘들게 이 사실을 깨달았다. 또 잠언 28 장 19~20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For instance, Proverbs 21:5 tells us, "The plans of the diligent lead to profit as surely as haste leads to poverty." In my early years I learned this the hard way. And Proverbs 28:19-20 offer this assurance: "Those who work their land will have abundant food, but those who chase fantasies will have their fill of poverty. A faithful person will be richly blessed, but one eager to get rich will not go unpunished."

언젠가 사업을 해보려는 계획이 있다면, '단시간에 부자 되는' 수법을 좇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달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 훨씬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If you are considering starting a business someday, you would be wise to avoid chasing get-rich-quick schemes. Instead, prayerfully consider investing monthly. You will find it more fruitful.

묵상과 토론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 1. 누군가 당신에게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며 접근한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했나요? Have you ever been approached with a get-rich-quick scheme? If so, how did you respond?
- 2.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 많은 돈을 벌려는 노력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혹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Do you think it is inherently wrong to strive to make as much money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Why or why not?
- 3.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알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히 이 이야기를 현대 비즈니스나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나요?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tortoise and the hare fable,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what it teaches? Especially if we apply the story to what we do in the contemporary marketplace?

4. 금융이나 사업을 작지만, 꾸준한 방식으로 시작해서 발전시킨 좋은 사례가 될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Can you think of a good example of someone who has taken the small and steady approach to finances, or starting and developing a business? How would you describe that person and the results he or she has experienced?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누가복음 16:10-12; 고린도전서 15:58; 갈라디아서 6:9; 디모데전서 6:9-10; 야고보서 1:12 Luke 16:10-12; 1 Corinthians 15:58; Galatians 6:9; 1 Timothy 6:9-10; James 1:12

- (누가복음 16:10-12)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 (고린도전서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 (**갈라디아서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디모데전서 6:9-10)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 (야고보서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앞으로 며칠 동안은 당신이 인생, 직업(또는 사업), 그리고 재정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작은 걸음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전략을 주로 써왔는지, 아니면 빨리 성취하려고 애써왔는지 돌아보세요.

Over the coming days evaluate your own approach to life, your business or professional life, and your finances. Have you taken more of a small and steady strategy, or have you been seeking to realize more rapid progress?

"누군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제안을 한다면, 실제로 믿기 어려운 제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수익성이 매우 좋아 보이는 제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지인이나 소규모 그룹과 만나, 함께 기도하고 알아보세요. 또한 신뢰할 만한 조언자들에게 도움을 구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혜와 통찰을 얻기를 바랍니다.

It has been said, "If something sounds too good to be true, it probably is...too good to be true." Meet with someone, or a small group of friends, and pray about how God would want you to respond to seemingly lucrative proposals. Rely on trusted advisors to offer their wisdom and perspectives for your decision-making in such areas.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저: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